

익산시, 재가 의료급여 사업 1번지

보건복지부 재가 의료급여 슈퍼비전 기관 선정... 전국 자치단체서 벤치마킹 방문 쇄도

익산시가 재가 의료급여 사업 운영 우수 사례로 소문나 전국 자치단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 재가 의료급여 슈퍼비전 기관에 선정된 이후 벤치마킹 문의와 방문이 쇄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가정에서 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9년 시작해 73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거쳐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신규 참여 지역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돕기 위해 익산시 등 우수 10개 지역을 슈퍼비전 기관으로 선정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료 및 교육 등의 역할을 부여했다.

익산시는 충남 11개 및 경기 4개 지역에 대해 슈퍼비전 기관으로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위한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



익산시가 재가 의료급여 사업 운영 우수 사례로 전국 자치단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다. 지난달 4일에는 평택시청 사회복지과에서 방문했으며, 오는 2일에는 금산군청 주민복지지원과 직원들이 익산시 재가 의료급여 추진 과정, 전문 지식 등을 공유받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경기도 오산을 비롯해 도내 군산, 고창, 순창 등 재가 의료급여 사업 신규 추진 지역에서도 사업 추진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문의

가 이어지고 있다. 김영희 복지교육국장은 "연이은 벤치마킹으로 익산시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다양한 서비스 지원으로 의료급여수급자가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이달부터 시범운영

소룡동 산단민원센터·작은도서관·체력단련실·다목적극장 등 시설 구비

군산시가 7월부터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성한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1일 시에 따르면 오식도동에 위치한 복합문화센터는 총사업비 98억원(국비 33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55억원)이 투입돼 원스톱 행정·문화·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어진 시설이다.

지난 4월 BF 본인증을 마치고, 센터 운영을 위한 내부 공간을 정비해 왔다.

지상 3층의 연면적 3,019㎡ 규모로 지어진 복합문화센터는 소룡동 산단 복합문화센터, 기업지원센터, 평생학습센터, 작은도서관을 집적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다목적극장, 체력단련장 등 입주기업 근로자 및 지역주민이 생활체육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과 다목적 대관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시설로는, 복합문화센터 1층은 민원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기존 오식도동에 있던 △소룡동 산단민원센터가 입주한다.

2층은 근로자와 주민들의 복지, 편의, 대관시설이 모여있는 공간으로, △작은도서관 △체력단련실 △다목적극장 △다목적실 △소회의실 등을 갖췄다.

작은 도서관에서는 도서대여 등 도서관 서비스 제공과 비도심 지역 주민을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며, 체력단련실에는 런닝머신, 벤치프레스 등의 운동기구

를 통해 유산소 운동부터 근력운동까지 할 수 있도록 마련해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다목적극장, 다목적실 등 대관시설은 대관 신청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고 한다.

3층은 △기업지원센터 △기업상담실 △기업지원실 △다목적실 △소회의실 △평생학습센터 강의실 등으로 구성해, 기업 지원 및 상담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며, 평생학습센터에서는 근로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문교양, 문화예술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1일부터 8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시설 및 운영사항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사전에 파악한 뒤, 오는 9월부터 센터를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건강 청림 계단 조성 '눈길'

군산시가 청림도 제고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가운데 청사 전체를 '청림구역'으로 지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청사 중앙 계단 1~3층 사이에 '건강 청림 계단'을 조성했다. '건강 청림 계단'에는 계단과 벽에 재치있는 청림 표어와 선현들의 청림 명

언 10가지를 배치해 계단을 올라가는 시민들이나 직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는 전 부서 출입문에 공지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 행동 지침 10가지를 약속하는 '청림 십계명' 포스터를 부착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악취대응 총력... 민원 크게 줄어

24시간 악취상황실 운영... 작년 상반기 대비 33.8% 감소

익산시는 악취 민원에 더욱 신속 대응하기 위해 5월부터 24시간 악취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1일 익산시에 따르면 상반기 민원 발생 건수는 284건으로 지난해 동기 429건 대비 33.8%가 감소했다.

이는 악취 발생 원인·시기를 파악해, 이를 토대로 기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저감 대책을 마련한 결과이다. 상반기에 접수된 민원을 살펴보면 축산악취 220건(77%), 공장악취 33건(12%), 기타 생활악취 31건(11%)으로 나타났다.

이에 익산시는 축산악취감시반을 운영해 민원에 즉각 대응하고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야간순찰과 야간 악취 시료 포집 집중 실시, 가축분뇨 불법 투기 단속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는 올해 하반기에도 악취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악취가 발생한 경우 '익산악취24'앱으로 접수하거나 유선(063-831-8020)으로 신고하면 즉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서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 선보인다

익산시-이랜드뮤지엄, 전시 협약... 9월 7일부터 보석박물관서

문화도시 익산시가 이랜드뮤지엄과 손잡고 세계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를 선보인다.

익산시는 이랜드뮤지엄과 1일 익산 시청 소회의실에서 세계문화예술산업 소장품 전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 한우석 이랜드뮤지엄 대표, 서영희 전시 이사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랜드뮤지엄은 지난 30년간 모인 소장품 약 50만 점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현대백화점 판교점과 '위대한 농구선수 75인전', 서울디자인재단과 'RSP:위대한 유산으로의 초대전'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치고 있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소장품 교

류 전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외 홍보 △행사 공동 주최 등 각 기관의 발전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세계문화예술산업 소장품과 관련한 교류 전시는 오는 9월 7일~12월 15일 까지 익산시 보석박물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영국 왕실 소장품(보석)을 주제로 진행되며, 이랜드뮤지엄이 소장한 한국인 최초 그래미 무대에 올랐던 방탄소년단(BTS)의 다이너마이트(Dynamite) 공연의상도 선보일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세계적인 소장품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와 함께 익산시의 매력과 가치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노인 대상 '동물매개치료' 운영

치매안심센터, 치료도우미견 2마리와 수공예 활동 진행

익산시 치매안심센터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은 치료도우미견과 교감을 통해 심리·정서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인지기능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수업은 훈련된 치료도우미견 2마리와 함께 간식주머니 만들기, 집 만들기, 빗질하기 등 수공예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7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하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치매안심센터(063-859-4127)로 문의하면 된다.

이진윤 보건소장은 "효과성이 검증



된 자원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치유와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보건소, 65세이상 찾아가는 무료 결핵검진

군산시보건소는 결핵 발생률이 높고 감염에 취약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무료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대한민국은 OECD 가입 국가 중 결핵 발생률 2위(2022년 기준)이며,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결핵환자의 55.8%, 결핵 사망자의 82.4% 차지하고 있어 정기적인 결핵검진이 필요하다.

결핵검진은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와 연계하여 경로당, 복지관, 주야간보호센터 등 노인 이용 시설로 결핵이동검진 차량이 찾아가 홍보X선 촬영부터 관독까지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기침이나 가래 등 증상이 있거나 홍보X선 촬영 결과 결핵 의심 소견이 있을 경우는 현장에서 객담검사를 추가로 진행한다.

객담검사 결과 결핵 확진 시 결핵 치료 의료기관으로 연계하여 즉각적인 진료와 복약관리 등이 이루어지며 결핵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무료로 치료를 받게 된다.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희망하는 시설이나 기관은 보건소 결핵관리실(☎54-5015~7)에 신청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의회 임사회 개최

의장·부위원장 선출

익산시의회는 1일 오전 제262회 임사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년 동안 시의회를 이끌어갈 제9대 후반기 의장 및 부위원장 선거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의장에는 김경진 의원(삼기, 영동2, 삼성)이, 부위원장에는 강경숙 의원(오산, 남중, 삼동)이 각각 선출됐다.

김경진 의장은 재선 의원(제8, 9대)으로 제8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을 역임했고, 강경숙 부의장은 3선 의원(제7, 8, 9대)으로 제8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과 제9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을 지냈다.

한편, 익산시의회는 2일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 및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 후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

